

예비 올스타 다 모였다…챔스필드 ‘후끈’

KIA 최형우·안치홍 등 8명·두산 니퍼트·최주환 등 5명 올스타 중간집계 1위



챔피언스필드를 무대로 한 ‘미리 보는 올스타전’이다.

KIA 타이거즈는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두산 베어스의 시즌 7차전을 가졌다. 전날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하루 쉬었던 두 팀은 ‘1위’와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타이틀 아래 대결을 벌였다.

두 팀의 만남은 ‘미리 보는 올스타전’이기도 하다.

2017 KBO 올스타전은 오는 7월 14일과 1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다. ‘별들의 잔치’에 올를 베스트 선수를 뽑기 위한 팬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

운데 KIA와 두산은 가장 핫한 팀이다.

NC, 넥센, LG, 한화와 구성된 나눔 올스타의 대표팀은 단연 1위 KIA다.

외야수 최형우가 2주 연속 중간 집계 결과 최다득표 타이틀을 차지한 것은 물론 양현종(선발투수), 김윤동(중간투수), 김민식(포수),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김선빈(유격수), 버나디나(외야수)가 팬투표 1위에 오르며, 나눔 올스타 12자리 중 8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드림 올스타(두산, SK, 롯데, 삼성, kt)에서는 두산의 활약이 돋보인다.

‘에이스’ 니퍼트(선발투수)를 시작으로 이현승(중간투수), 양의지(포수), 최주환(2루수), 민병현(외야수)이 2차 중간 집계 결과 드림 올스타 1위에 올랐다.

중간 집계 결과로만 본다면 올스타 무대를 밟게 될 24명의 베스트 중 13명이 챔피언스필드를 누빈 것이다.

올스타전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팀은 이날 소중한 한 투표권도 행사했다.

‘베스트 12’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팬 투표수(70%)와 선수단 투표수(30%)를 합해 결정된다.

30%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단 투표가 21일 챔피언스필드 등 전국 5개 구장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챔피언스필드 인터뷰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방망이와 글러브 대신 팬을 들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투표에 나선 선수들은 ‘소신파’와 ‘지인파’로 나뉘었다.

“성적을 보고 찍겠다”는 김호령과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판단을 했다”는 고효준과 달리 ‘팔이 안으로 굽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광수는 “학교 후배, 내 친구” 등을 외치며 지인들을 찾아 기표했고, 이명기

도 “지인들을 찍었다”고 수줍은 고백을 했다. 안치홍·김선빈 등도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표를 행사했다.

‘지인파’인 김민식은 전략적 투표를 했다. 상대팀인 드림 올스타에서는 ‘진정 팀’ SK에 표를 몰아주었다고 밝힌 김민식은 아군이지만 아직 베스트 경쟁 중인 나눔 올스타에서는 “득표율이 낮은 선수를 찍었다”며 웃었다.

‘베스트 12’으로 생애 첫 올스타 출전에 도전하는 김민식은 “좋기는 하지만 내가 갈 실력이 아닌데 1위를 하는 것 같다 부담도 된다”며 1위 소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고 싶어요”라며 올스타전 참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김윤동은 자신의 이름에 마크하지 못한 걸 아쉬워했다. 선수단 투표의 경우 소속팀 선수에는 투표하지 못하게 용지가 따로 제작됐다.

한편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합한 ‘베스트 12’ 최종 명단은 오는 7월3일 발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선빈 “중학교 때 영어 듣기 평가 98점 맞아”

안치홍 “최연소 올스타 기록은 깨지는 거니까”

덕아웃 T 톡톡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 KIA는 지난 4월14일 이후 1위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김기태 감독은 이에 대해 “지금은 승차가 큰 의미가 없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며 “승차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승차를 보면 괜히 경직되는 것 같다”며 승차가 아닌 마지막 결승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역전당해서 =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는 올스타 선수단 투표가 진행됐다. 기억에 남는 올스타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은 “3타수 3안타를 치고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MVP를 못 받았다. 역전당해서 연장을 갖는데 유지현이 끝내기를 쳐서 MVP를 가져갔다”고 웃었다. 1997년 유지현은 LG 사상 첫 올스타전 MVP가 됐다.

▲98점 맞았어요 = 21일 선수단 올스타 투표가 진행되면서 선수들이 학생모드

가 됐다. 테이블에 앉아서 꼼꼼하게 명단을 확인하고 투표를 하던 선수들. 김선빈도 팬을 들고 ‘학생 모드’가 됐다. “학생 같다”는 이야기에 김선빈은 “중학교 때 영어 듣기 평가 98점 맞았다. 공부 잘했다”며 자기 자랑 시간을 가졌다.

▲기록은 깨지는 것이니까 = 9년 차가 되어 맞는 안치홍의 올스타전이다. 안치홍은 신인 시절인 2009년 고졸 신인 선수 첫 베스트 선수 선정에 이어 올스타전 최연소 홈런 그리고 최연소 MVP까지 기록하면서 화제가 됐다. 제대 후 맞는 첫 시즌에서 팬 투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는 “신인 때는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당시 김충모 수석코치님이 올스타전 가서 불뚫으로 나가면 바보라고 하셔서 공격적으로 했다”며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 시즌 넥센의 고졸 신인 이정후가 뛰어난 실력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최연소 베스트 자리를 노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스타전 유니폼 공개

프로야구 ‘별 중의 별’이 입을 2017 타이 어뱅크 올스타전 유니폼이 공개됐다.

마제스티에서 제작한 올해 올스타 유니폼은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의 상징인 하늘색과 빨간색을 대표색상으로 채택했으며 별 무늬 패턴과 밑단으로 갈수록 밝아지는 색채 변화를 주어 시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준다.

또 작은 별들이 모여 큰 별 무늬가 되는 디자인을 통해 KBO 리그 인기 스타들이 모인 야구 올스타전을 표현했다.

올스타 유니폼을 포함한 어센틱 모자, 기넨구, 기넨티셔츠, 머그컵 등 올스타 전체 상품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에 공개된다. 판매는 공식 온라인 판매처인 락커디움(lockerdium.com)에서 이뤄진다. 오프라인 구매는 올스타전이 열리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7월 14·15일 이를 동안 가능하다.

올스타 유니폼 가격은 어센틱 8만 9000원, 레플리카 5만 9000원이다. 온라인 구매 시 2만원을 추가할 경우 원하는 선수의 이름과 배번을 마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올스타전은 오는 7월 14일과 1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리며, 드림 올스타(두산, SK, 롯데, 삼성, kt)와 나눔 올스타(KIA, NC, 넥센, LG, 한화)로 나뉘 대결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승환 1이닝 퍼펙트

미국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한국인 마무리 오승환이 9회 동점 상황에서 등판해 1이닝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오승환은 21일 2017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방문 경기에서 9회말 팀의 4번째 투수로 등판했다.

오승환은 첫 타자이자 필라델피아의 4번 타자인 토미 조셉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어 마이클 프랑코는 조구 93.1마일(약 150km) 포심 패스트볼로 2루수 뜬공 처리했다. 다니엘 나바는 2구째 체인지업으로 2루수 앞 땅볼로 요리한 오승환은 공 8개 만으로 1이닝을 깔끔하게 틀어막았다.

오승환이 마운드에 오른 것은 지난 16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에릭 테임즈에게 끝내기 홈런을 내주며 시즌 3패(1승 15세 이브)를 기록한 이후 다섯 만이다. 오승환은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마치고 10회 말 마운드를 케빈 시그리스트에게 넘겼다. 세인트루이스는 연장 11회초 야다에르 몰리나, 토미 팸의 홈런 등으로 대거 7점을 뽑아내 8-1로 승리했다. 2연패 사슬을 끊은 세인트루이스는 시즌 32승(37패)째를 거뒀다.

/연합뉴스



스릴 만끽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야수켈론 지중해 해안에서 한 남성이 서핑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오랜만에 언론 등장 강정호…거취는 안갯속

美 일간지 “미국 정부에 달려”

미국 언론에서 모처럼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이름이 등장했으나 그의 거취와 소속팀의 대응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렀다.

일간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의 파이리츠 담당 기자인 스티븐 네스빗은 21일 독자와의 문답 코너에서 ‘강정호 소식’이 있는가, 올 시즌에만 될 수 없는 선수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앞으로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스티븐 기자는 “올 시즌에는 강정호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모든

것은 미국 정부가 강정호에게 무엇을 바라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정호가 메이저리그에서 될 수 있도록 취업비자 발급 권한을 지닌 미국 정부가 그의 거취를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비자를 내줄 사안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기자는 “모든 상황이 흐릿하고, 피츠버그가 이를 시정할 실마리를 켜진 것도 아닌 것 같다”면서 “‘제한 선수 명단’에 오른 강정호는 연봉을 받지 못해 구단에도 비용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강정호가 피츠버그 계속 전력에 포함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계획하기는 어렵다”

고 썼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실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했으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징역형 유지로 강정호는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메이저리그 복귀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강정호의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현지에선 ‘피츠버그 구단이 강정호의 올해 연봉(275만 달러)으로 대체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다’, ‘강정호를 방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

소변 대신 혈액 검사…PGA 도핑 검사 강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2017-2018 시즌부터 도핑 검사를 강화한다.

21일 골프채널에 따르면 PGA 투어는 선수들의 혈액 검사와 함께 적발시 상세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달라지는 도핑 검사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10월부터 시작하는 다음 시즌부터 현재의 소변 검사에서 혈액 채취를 통한 검사를 받게 된다.

성장 호르몬과 같은 성분은 소변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혈액 검사를 통해서만 검출되기 때문에 도핑 검사가 강화되는 것이다.

투어는 또 투약 금지 약물 성분을 현재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리스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 결과의 공개다.

PGA 투어는 현재 어떤 선수가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면 그 선수의 출장 금지 기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시즌부터는 검사 과정을 거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선수 이름과 함께 출장정지 기간을 상세히 밝히게 된다.

또 위반 사항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것이었는지, 약물 남용에 따른 것인지도 밝힌다. 현재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위반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고 있다.

PGA 투어는 이같은 도핑 검사 강화를 통해 선수들을 보호하는 한편, 골프가 클린 스포츠로서 더욱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